

# 현장 지원하는 포교원 된다

### 조계종 포교전진대회 행정체계구축 등 정책과제 발표

조계종 포교원이 올해 '포교현장을 지원하는 포교원'을 슬로건으로 교구와 단위사찰 및 단체에서 필요한 현장중심의 사업을 생산하고 추진한다.

1월 7일 속리산관광호텔에서 열린 '불기2550년 포교전진대회'에서 포교부장 일관 스님이 밝힌 올해 슬로건과 주요 정책 과제에 따르면, 포교원은 정책 과제 중심이 '중앙-교구-말사-단체 포교행정체계 구축'에 있다고 보고 △포교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구 포교 매뉴얼 제작 △모범 교구 운영 지원 등을 한다.

이는 급변하는 포교환경에 따라 포교의 유연성 및 시효성이 절대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또한 포교시스템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 각급 포교주체 책임행정 수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포교원은 또 정보기술에 바탕을 둔 한국불교문화의 새로운 불사를 위해 '국제사이트 구축'을 정책 과제로 선정하고 △국제사이트 개발 운영 △포교컨텐츠 개발 및 보급을 세부목표로 내놓았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왼쪽에서 여섯번째) 등 포교전진대회 참석자들이 포교활성화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혜철 대건·충북지사장

포교원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해온 신도등록 사업 결과 신도등록자 및 재등록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판단 아래 '신도등록사업의 획기적 개선과 활성화'도 모색한다. 종단 신도등록자 관리 및 지원 조직 시스템 개선을 위해 △신도등록 방법 개선 △신도등록 절차 개선 △신도등록자의 조직, 지원 방안 모색을 지원한다.

포교원은 이와 더불어 조계종도정체성 함양과 이에 부합하는 신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신도위계 및 수계체계 정립'을 실시한다. 이는 신도 등록, 교육, 조직, 수행 체계 완성을 위한 준비사업이 될 전망이다. 포교원은 이 외에도 '간화선 수행

진작'을 위해 △간화선 기본 수행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간화선 프로그램 완성 및 보급 △신도교육 교재 개정도 완성할 계획이다.

포교부장 일관 스님은 "포교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포교정책 과제 수행 결실은 우리 모두의 노력과 함께 할 것"이라며 "힘찬 도약을 위해 최선의 다짐"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포교전진대회는 8일까지 법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신도위계 및 수계체계 정립'을 실시한다. 이는 신도 등록, 교육, 조직, 수행 체계 완성을 위한 준비사업이 될 전망이다. 포교원은 이 외에도 '간화선 수행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각 종단 신년하례식 화합과 정진 다짐

태고종 신년 종정 하례식이 1월 9일 태고총림 선암사 설선당에서 봉행됐다(사진).

하례식에는 승정원장 남파, 원로회의의장 일우, 총무원장 운산, 사정원장 월은 스님등 종단 각급 기관장과 전국 21개 시도교구총무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종정 해초 스님은 법어에서 "시간을 토막내어 묵은해, 새해 하는것은 근본도리에 맞지 않으나 끊임없이 흘러가는 세월속에 중도가 화합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도 인사말에서 "원로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전통문화 전승관 건립, 연수원 확충, 종립불교대학 교육여건 개선으로 수행풍토를 진작시키고 전통종단의 위상을 확고하게 다지겠다"고 다짐했다. 이력중 신년하례회가 1월 9일 지



리산 일성관도에서 종정 연하, 종회의장 연봉, 총무원장 송정 스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년하례회 후 가진 종회의장선거에서는 지은 스님(경남 중부교구원장)이 신임 종회의장으로 선출됐다. 또 감찰원장은 월산 스님(대원정사 조실)이, 신약회장은 보성스님이 선출됐다.

해동종은 1월 10일 용인 대원사 총무원 법당에서 신년하례 및 시무식을 봉행했다. 종정 해봉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송산, 종회의장 보장 스님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행자기본교

육 15일로 확대 △중국 구화산과 미얀마불교명상대학과 연계 해외성지 연수교육 실시 △하기 연수교육(종도 사찰지정: 7월말경) 등의 신년 계획을 발표했다.

본원종도 1월 9일 양평 서암사에서 신년 하례식 및 시무식을 거행했다.

종정 무구 스님은 "창종 16주년을 맞는 올해는 행사교육과 유아포교 사업 및 복지사업 기를 마련 원인으로 정했다"며 "모든 종도들이 올해 세운 계획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힘을 합치자"고 당부했다.

원효종은 1월 10일 원효종 총본산 부산 금수사에서 신년하례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고산 스님 등 100여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종정 덕산 스님은 신년교시를 통해 "그동안 분열된 종단의 이미지를 모두 털어내고 원효종사와 범종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수행정진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종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군 생활 도중 다치거나 몸이 아픈 장병들은 1차적으로 사단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지만 중증인 경우 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다. 육체적 병을 가진 장병들은 종교에 의지해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군 병원의 포교 열기는 차갑기만 하다. 자원봉사 부재 등 군 병원 포교 시스템의 허술함은 '군포교'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을 그대로 보여준다.

# 군병원 법당은 포교 사각지대

### ■군병원 법당 운영실태

현재 전국 군병원은 모두 15개다. 이 가운데 건물 신축중인 원주 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법당이 있다. 군병원 법당은 일반 부대 법당보다 규모나 시설면에서는 월등히 좋다. 대부분의 군법당은 군법사의 모연으로 지어지고 있지만 군병원 법당은 군 예산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법당을 관리 운영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15개 병원 가운데 군법사가 상주하는 곳은 의무사령부 단 한곳뿐이다. 나머지 법당은 군종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병이 한명 있을 뿐 불교 군종병조차도 없다.

법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 법회는 고사하고 시설관리도 제대로 될 리 없다. 양주병원 법당의 경우 3년전에 신축됐으나 법당 안에 습기가 차고 썩어빠진 냄새가 나지만 그냥 방치되고 있다.

군법사가 없는 법당은 인근부대 군법사가 일주일에 한차례 찾아와 법회를 보는 것이 불교 행사의 전부다. 부산, 마산, 광주병원은 포교사가 민간성직자(군대서 종교활동 허용받은 민간종교인)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법당에 상주하는 군법사가 없다면 법회 보는

것 이외의 병자들을 위한 위문이나 기타 대의 행사는 염두도 못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개신교에서는

개신교의 경우 두 곳의 병원에 군목사가 배치되어 있다. 군종장교 수만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머지 병원에는 목회활동을 전담하는 민간 성직자가 모두 위촉이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전도사들이 병동전담 요원으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민간성직자는



군병원 법당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성직자 제도 확대, 지역 인문 사찰·기업 등의 자매결연 등이 절실하다. 사진은 의무사령부 박수준 군법사가 병실 장병을 위문하는 모습.

## 15개 병원에 법당 있지만 군법사 1명뿐 군법사 늘리고·'민간성직자제도' 확대를 사찰·기업 자매결연 통해 지원 이어져야

군 교화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며 장병들은 물론 장교, 부사관 교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군선교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수도병원의 경우 각 병동마다

이다. 병원 법당마다 모두 군법사가 배치되어 법당을 관리하고 신생활과 장병 위문 등의 활동을 펼치려면 군의 사기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군의 현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면 민간성직자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인근 사찰의 스님이나 재가 포교사, 또는 전역한 예비군법사를 군병원 법당에 상주하는 민간 성직자로 위촉해 활동을 지원한다면 군이 군법사가 배치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지역 사찰과 기업 등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지속적인 자원봉사자와 위문품 지원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민간 성직자가 군법사를 대신해 신생활, 병자 위문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사령부 박수준 군법사는 "현실적으로 민간 성직자를 많이 위촉해 장병과 가족, 장교들의 신생활을 돕고 병동에 누워있는 아픈 장병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포교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인근 지역 사찰이나 불자들의 자원봉사활동과 지속적인 위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희 기자 doobi@buddhapia.com

###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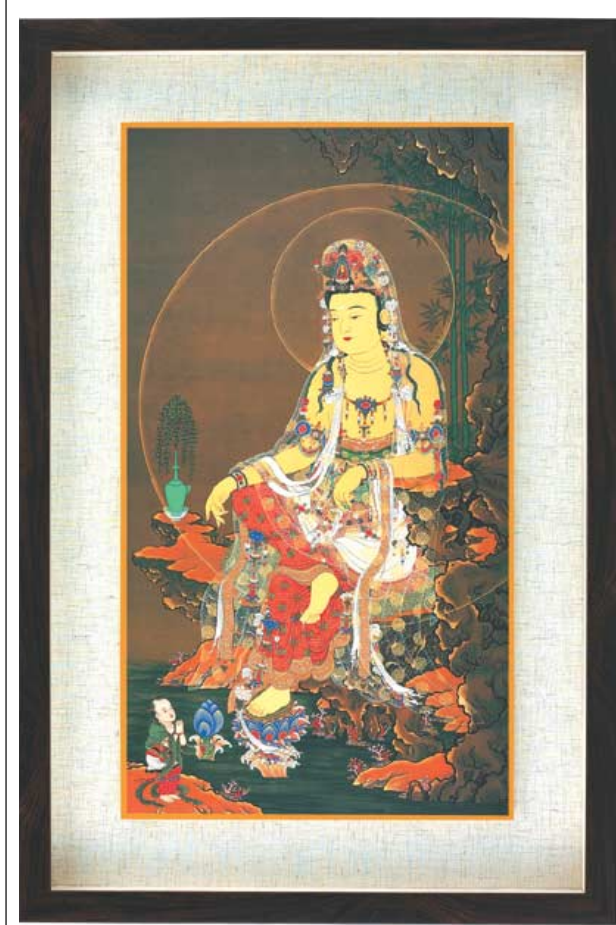
####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함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추어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려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 ■어떻게 동참하나

- ▶결연: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 ▶군법회 위문: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 ▶군법당 건립 후원: 넓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 ▶정기적 물품 전달: 군법당, 군법사에 후원품 전달.
- ▶법사 지원: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 ▶동참 및 문의: 조계종 군종교구 (02)749-864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수월관음도 | 가정과 사업장의 번영의 수호신 가정에 1점씩 영험의 가보로!



### 만사행통의 불화!

####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되지 않는 불화!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고뇌와 고통을 구제하는 자비의 부처님으로 관세음보살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앙은 매우 열렬하다. 수월관음도는 하늘에 뜬달이 물속에 비친달이라는 뜻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환상과 꿈들이 물에 비친 달이 텅텅없고 같다는 것을 깨우침으로써 인생의 고난을 초월하도록 하고 자비로운 구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수월관음도 불화는 100% 천연로트 판화공지에 28도 옅은판화인쇄와 베를린 약시를 사용해 진품과 다름없이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되지 않는 특별 제작된 불화다. 영험의 고려 불화 재현을 위해 30년이만 긴 세월을 장인정신 하나로 이 시대를 살아온 불화의 명장 法性 김의식 화백에서 기도와 영험으로 제작된 수월관음도는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삼재물 소멸하고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도 물리치며 시작부터 풍요롭게 하는 영험을 담고 있는 불화로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주는 가정의 가보로 손색이 없는 불화로 평가받고 있다. 최고급 2단 돌출 표주보 제작되어 품위가 있으며 가정과 사업장에 번영과 안녕의 수호신으로 1점씩 꼭 있어야 할 영험의 불화로 축원불공을 마치고 보급하고 있다. 보급대행은 한국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정성껏 보내준다. 가격 168,000원 문의전화(02)735-6919 농협053-12-102911

높이 88cm, 폭 58cm

## 평생 부자지갑

종경하는 본계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여성용 銀나노정지갑 (진보라색) / 남성용 반지갑 (검정/분색)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품격!

## 관세음보살 福 지갑

병술년 원하는 재물을 얻고 소원 성취하라!!

삼재를 소멸하고 악귀와 잡귀를 쫓는 금강저도 부처

60년만에 온 병술년은 재물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재운이 오는 좋은 해다. 세상은동안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을 읊어 지니고 다니면 동서남북에서 재물이 들어오고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되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있는 법구다.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 불공속에 만든 관세음보살 부자지갑은 지갑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삼재를 소멸하고 악귀와 잡귀를 쫓고 승리하는 금강저를 손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 천연 銀나노 가죽으로 일반지

갑과는 비교할 수 없게 섬세하게 꾸며진 최고급지갑으로 안패던 장사와 사업이 잘되고, 사업실패로 좌절하던분이 복권에 당첨되고, 포기했던 돈이 들어오고, 쌓여있던 재고가 팔리고 증권과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버는등 관세음보살의 영험이 나타나는 지갑이다. 여성용 銀나노 보라색은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사용방법과 영험의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병술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축원불공을 드려 드리며 부자지갑은 바로 보내준다. 남성용6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 옴마니 반매홍 벨트

삼불의 성심과 음양의 조화로 소망이룩!

승리의 선물! 건강의 선물! 지혜의 선물!

세상사는 동안 중생마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가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간다. 사람에 따라 합격의 소망, 승진의 소망, 사업성공의 소망, 연구성공의 소망, 주택소유의 소망, 취업의 소망, 건강회복의 소망, 결혼의 소망, 자녀를 갖고 싶은 소망, 등 다양한 소망을 갖고 살지만 미련한 중생이 음양의 조화를 깨달지 못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옴마니 반매홍은 삼불의 지혜를 얻고,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 처음 계획했던 뜻대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진리의 뜻을 담은 벨트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므로서 화를 미러막고 시작과 끝이 풍요롭게 되는 진리의 법구다. 고급천연가죽으로 제작된 옴마니 반매홍자주 벨트는 벨트에서 원적선과 멜토네너지가 발산되어 장과 간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고급벨트로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고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택배로 보내준다. 가격 75,000원 문의(02)741-4488